

## 과정사상의 관점에서 본 동물권(動物權)\*

- 린지(Andrew Linzey)의 동물신학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

이승갑 (한일장신대학교 조교수)

### I. 여는 말

### II. 몸 말

1. 과정사상과 비-인간 피조물의 권리
  - 1) 과정사상과 과정-관계적 범재신론(panentheism)
  - 2) 심층생태학(deep ecology)의 도전과 인간중심주의의 극복
  - 3) 과정-관계적 생태영성과 비-인간 피조물의 권리
2. 과정신학과 동물신학의 만남
  - 1) 과정신학자들의 동물권 이해
  - 2) 맥다니엘(Jay B. McDaniel)의 관계적 생태영성
  - 3) 린지(Andrew Linzey)의 신학적 동물윤리
3. 과정신학으로서의 동물신학과 과정-관계적 동물윤리
  - 1) 과정신학으로서의 동물신학의 가능성
  - 2) 과정-관계적 동물윤리의 의의

### III. 닫는 말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32-A00065).

---

• ABSTRACT •

---

## A Process Understanding of Life-Rights of Animals, in Dialogue with Andrew Linzey's Animal Theology

Lee, Seung-Gap

This study intends to do a religious/philosophical and theological approach to the issue of “the life rights of animals”(so-called “animal rights”) arising in our society. A progressive and practical change regarding animal rights requires a new ethics based upon specific presuppositions of philosophy and religion, and focused on theological ethics particularly within Christian communities. Thus, this study focuses on the religious/philosophical and theological convictions of the way God deals with the world, and of the relationships of human beings and non-human creatures.

This study focuses on the so-called process thought of Alfred N. Whitehead (1833-1947), which is a proper and reasonable world view on the relationship of God and the world, and of God and humankind, and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human beings and non-human beings. Also, this study evaluates the very theological, ethical questions that Andrew Linzey's animal theology is subject to, and at the same time, proposes process thought as a proper and readable reference for any religious/philosophical and theological reflections on Linzey's animal theology. As the process-relational perspective puts emphasis upon the plausibility of animal theology and its ethical implications rooted in the basic values and interdependent relations of all beings, the overcoming of anthropocentrism, and the value and life right of non-human creatures, it is to be considered as a more proper reference/resource for responsible eco-life-centered practices.

**Key words:** animal rights, animal ethics, animal theology, process theology, process-relational thought

## I. 여는 말

지난 2011년, 한국사회는 유례없이 큰 규모의 구제역(口蹄疫)<sup>1)</sup> 파동으로 천문학적 수(數)의 가축이 예방적 차원에서 생매장당하는 상황을 경험했다. 당시 사회전반 뿐만 아니라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가축의 예방적 살처분 방식과 관련하여 동물의 생명권 문제가 이슈로 대두되면서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 발병으로 인한 가금류 살처분에서도 보듯이, 가축전염병이 발병할 때 마다 우리정부가 선택하는 예방적 살처분 방식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 선택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살처분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 여류보양식으로 개를 식용하는 등 동물이용에 있어 한국사회의 오랜 관습은 소위 ‘비문화적’이고 동물학대적 태도로 간주되면서 국제적 비판의 도마에 오르곤 한다. 인문학적 통념으로 볼 때, 세상 만물과 모든 공간, 심지어 정신문화 영역까지도 인간 삶에 있어 존중되어야 할 주변 환경에 해당한다. 그런 의미에서 동물의 실존이 인간 삶의 존중받아야 할 주변 환경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그 권리문제가 심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지적되어야 한다. 과학적, 경제적, 사회학적 동기들을 배경으로 한 일방적이고 비이성적인 고통유발이 인간에 의해 동물의 실존에 지속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최근 학계에서 지배적인 화두(話頭)인 생태·생명주의 운동은 인문학적 논의의 중심이 인간중심주의로부터 생태·생명중심주의로 전환할 것을, 즉 모든 동물을 망라한 비-인간 생명체의 생명권 보장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을 촉구한다. 사실 철학적 담론에서는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글

1) 동물, 즉 소나 돼지와 같은 가축들이 잘 걸리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hoof-and-mouth disease라고도 함.

들이 적지 않게 있어왔지만, 동물의 생명권 논의에서 철학적 차원의 도덕주의적 접근은 그 자체로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습과 태도에 있어 보다 실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철학적, 도덕주의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종교적, 신학적 윤리에 주목하는 논의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동물권(動物權) 논의에서 철학과 신학이 결합되고 있는 최근의 세계관적 관점에 주목하게 되었고, 특히 지난 세기 후반 이래로 학문의 제 분야에 근본적 영향을 끼쳐 온 화이트헤드(Alfred N. Whitehead, 1833-1947)의 과정사상(process thought)이 특히 동물권 논의에 적합한 세계관적 관점이라는 생각을 일단의 과정신학자들과 공유하기에 이르렀다. 이 글에서 필자는 동물권 이슈가 인간 삶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세계관의 문제에 해당되며 종교적, 신학적 윤리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주목하였다. 필자는 화이트헤드 과정사상의 세계관을 통해 비-인간 존재에 대해 과정사상의 관점이 제공하는 생태·생명윤리적 함의들을 논하고, 동물권에 대한 과정-관계적 사고의 이해를 토론했 후, 나아가 과정-관계적 생태영성을 말하는 과정신학자들과 동물신학 주창자인 린지(Andrew Linzey)와의 만남을 통해 과정신학으로서의 동물신학의 가능성과 과정-관계적 동물윤리의 의의를 논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화이트헤드의 과정사상인가?

오늘날 인류사회의 안녕을 위해 필수적인 윤리적 가치들 대부분이 생태·생명학적 질문들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를 들어, 기독교 신앙이 현실세계에 적합한 윤리적 실천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면, 현실세계가 직면한 생태적 위기에 대해 어떤 철학적, 종교적으로 일관된 세계관에 기초하여 주의 깊게 조정된 해결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세계관은

무엇보다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계 방식, 즉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대한 관계, 그리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방식에 대한 종교적 확신들에 근거해야 한다. 이것은 신학의 주된 문제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세계 (God the Creator and creation)의 관계, 즉 하나님과 세상(God and the world), 하나님과 인간, 심지어 인간과 비-인간 피조물(God and human beings, and non-human creatures) 사이의 관계성이어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의 생태신학에서 인간과 비-인간 피조물 (nonhuman creatures)의 관계가 주된 문제로 떠오른 사실은 설득력 있게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계,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설득력 있는 비전이 과정사상의 실재관(實在觀), 즉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인 〈유기체(有機體)의 철학〉(Philosophy of Organism)이다.

## II. 몸 말

### 1. 과정사상과 비-인간 피조물의 권리

과정사상의 핵심적인 세계관적 특징은 세계 안의 모든 존재들에 대한 상호관계적(co-relational), 즉 보다 과정신학적 표현을 빌리자면, 과정-관계적(process-relational) 관점이다.<sup>2)</sup> 필자는 화이트헤드의 과정-관계적 실재관에 기초해서 모든 존재들의 본래적 가치와 상호의존적 관계성이 말해질 수 있고, 나아가 인간중심주의의 극복, 비-인간 피조물의 가치와 동물의 생명권 문제가 적극적으로 토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실재(reality)에 대한 화이트헤드의 견해에 따르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모든 다른 존재하는 것들에 내적으로 관계되어 있다(*All existing things are internally related to all other existing things*).

### 1) 과정사상과 과정-관계적 범재신론(panentheism)

지난 세기 인류가 경험한 과학의 발전은 전(全) 지구적 생명계에 지속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의미심장한 세계관적 변화들을 가져왔다. 그 변화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인류가 가진 세계관이 인간과 비(非)인간 세계 사이의 관계에 대해 기존의 이원론적 관점에서 생명현상의 전체성을 강조하는 전체론적(holistic) 관점으로 급격하게 선회했다는 것이다.<sup>3)</sup> 예를 들어, 상대성이론과 양자물리학은 관찰자와 피관찰 대상이 절대적으로 분리될 수 없으며, 심지어 자연을 묘사하는 행위 자체가 자연의 성질을 부분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에 과학자들은 서구사상을 지배해 온 인간과 자연계 사이의 이분화의 종국을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신학자들 또한 그동안 과학자들에게 내어 준 영역에서 과학의 결론과 수렴가능한 교리적(신학적) 재구성을 시도하도록 도전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좁게는 생물학과 신학, 넓게는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이 그들 사이에 통전적이고 우주적인 틀의 대화를 통해 실로 다양한 수준과 차원의 생명 현상을 전체론적으로 이해하고 그 생명들의 해방과 실현을 위해 나름대로 헌신하도록 초대받게 된 것이다.

“유기체의 철학”<sup>4)</sup>으로도 호칭되는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이 모든 사물들이 그들의 환경에 대해 갖는 내적 관계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알 수 있

3) 그러한 세계관적 변화를 주도한 것 가운데 하나가 화이트헤드의 과정사상이었고, 화이트헤드의 사상에 기초한 과정적 세계관은 서구사회의 과학적 사고뿐만 아니라 종교적 인식과 삶에 지대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4) 유기체의 사전적 의미는 “많은 부분이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조직되어 그 각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 관계를 가지는 조직체”를 가리킨다. 화이트헤드의 철학을 <유기체 철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의 철학이 실제의 본질을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우주의 유기체적 관계성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그는 실체론적 철학을 극복하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관계론적 세계관을 발전시켰다.

듯이, 과정사상의 실재관의 핵심은 관계성(relationship or connectivity)에 대한 강조에 있다. 화이트헤드의 철학은 관계성을 전면에 내세운다. 우주는 원자적이거나 또는 총체적으로 통전적이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관계적이고,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모든 존재들(entities)은 관계되어 있으며, 서로 근접해 있는 존재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현실적 존재들(actual entities)은 그들 상호간의 파악들(prehensions)에 의해 서로를 포섭하는데,<sup>5)</sup> 현실 존재<sup>6)</sup>와 파악<sup>7)</sup>이 실재적이고 개별적이며 개체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에서, 실재적이고 개별적이며 개체적인 현실적 존재들의 ‘공재’(共在, togetherness), 즉 ‘결합체’(a nexus)로<sup>8)</sup> 불리는 실재적이고 개별적이며 관계적 사실들이 존재하게 된다. 직접적인 실제적 경험의 궁극적 사실들은 현실적 존재들, 파악들, 그리고 결합체들로서, 파악을 통해 각기 다른 존재들은 피차 내면화되며, 각자의 경험의 계기들(occasions)의 한 부분이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과정사상의 제안에 따르면, 세계는 다양한 종류의 결합체들 안에 있는 사건들, 일들, 과정들 안에 있다. 따라서 과정사상 안에서는 그 성질들이 시간과 관계들과 상관 없이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소위 본체들(substances) 또는 지속적인 본래적 존재들을 전제하는 전통적인 신학적 사고가 성립되지 못한다. 한편, 겉으로 관련된 물체의 집합체보다는 오히려 상호 작용하는 사건들의 짜

5) Alfred N.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An Essay in Cosmology*, Corrected Edition by David Ray Griffin and Donald W. Sherburne (New York: Free, 1978), 18-20.

6) ‘현실적 존재’는 ‘현실적 계기(occasion)’이라고 불리며,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궁극적인 실제적 사물이다. 이것은 데모크리투스(Democritus)의 원자들처럼 미시적(microcosmic) 존재로서, 사회 또는 결합체라 불리는 이들의 집합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거시적(macrocosmic) 존재, 예컨대 나무나 집, 사람 같은 것들을 형성한다.

7) 파악(prehension)은 관계성의 구체적 사실로서 현실적 존재(actual entity)를 구성한다. 모든 파악은 세 가지 요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는 파악하는 ‘주체’, 즉 그 파악을 자신의 구체적인 요소로 하고 있는 현실적 존재이고, 둘째는 ‘파악되는 여건’이며, 셋째는 그 주체가 그 여건을 파악하는 방식인 ‘주체적 형식’이다.

8)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20. nexus의 복수형태는 nexūs이다.

임새로서 실체를 보는 유기적 견지가 생태학적 관점과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과정신학을 대표하는 캅(John B. Cobb Jr., 1925~)은 이러한 과정사상의 관계적이고 유기체적인 우주론적 비전에 크게 의존하여 경험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방식에 관해 의미있게 말하는 방법을 발견함으로써 자신의 생태신학적 모델을 발전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과정-관계적 실재관에 기초한 과정사상의 신관(process theism)은 소위 관계적 범재신론(relational panentheism)이라 명명되며, 이것이야말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 과정신학의 이름으로 제시되는 특징적인 모델이다. 과정신학의 신관에 따르면, 하나님은 세계발전의 과정에서 현실 존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 과정신학에서, 굳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원초적 근원이라는 의미에서이다.<sup>9)</sup> 메슬(Robert C. Mesle)의 말과 같이, 과정-관계적 관점을 지닌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부름으로써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리고 동일한 보편적 존엄성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존재로 본다.”<sup>10)</sup> 즉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과만 관계하는 분, 즉 세계 속에서 극히 소수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종(種)과만 관계하는 분이 아니라, 전체 동·식물이 살고 있는 세계 속에서 내재하고 거기서 활동하는 분이다.<sup>11)</sup> 과정-관계적 신관에서, 신은 더 이상 인간과만 관계하는 존재, 즉 세계 속에서 극히 소수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종(種)과만 관계하는 존재가 아니라, 전체 동·식물이 살고 있는 세계 속에서 내재하고 거기서 관계하고 활동하며, 세계 내의

9) ‘primordial nature of God’(신의 원초적 본성).

10) 로버트 메슬, 이경호 역, 『과정신학과 자연주의』(이문, 2003), 138. Robert C. Mesle, *Process Theology: A Basic Introduction*, St. Louis, Missouri: Chalice, 1993.

11) 위의 책, 173-174.

모든 삶의 결과들을 예외 없이 수용하고 보존하는 존재이다.

결론적으로 과정사상은 모든 형태의 존재는 신에 의해 평가되고 신의 경험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신은 모든 존재에 영향을 주며 또한 모든 존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과정-관계적 신관에 따르면, 신의 신성한 삶에 동참함으로써 모든 존재는 의미를 가진다. 말하자면,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서, 또한 다른 생명체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에게 귀중한 것이다.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보호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또한 생태계의 다른 구성원들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신의 삶은 창조된 질서의 다양성을 통해 풍부해지기 때문이다.

## 2) 심층생태학(deep ecology)의 도전과 인간중심주의의 극복

화이트헤드의 과정사상, 특히 화이트헤드 자신이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로 부르기도 하는 창조세계에 대한 그의 비전은 생태·생명회복을 고민하는 인류에게 심층생태학(deep ecology)을 도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생태계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심층생태학적 관점에서 과정사상이 확인하는 바는 이것이다. 즉, 모든 존재들의 본래적 가치(intrinsic value)와 그들의 근본적 상호의존(radical interdependence)에 대한 전제가 그것이다. 이제 화이트헤드의 사고를 따르게 되면, 모든 존재들에게 일어나는 일의 본래적 중요성과 각 행위의 영향들이 전체를 통해 어떻게 뻗어 나가는지에 대해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일어나는 일의 중요성은 결코 인간들을 위한 중요성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sup>12)</sup> 말하자면, 과정-관계적 사고는 〈탈-인간중심주의〉(de-anthropocentrism)의 태도를 가질 것을, 즉 생태·생

12) John B. Cobb Jr., "Deep Ecology and Process Thought," *Process Studies*, 30, no. 1 (Spr-Sum 2001), 112.

명학적 담론들에서 그토록 문제가 되고 있는 인간중심주의를 포기할 것을 요청한다.<sup>13)</sup> 이런 맥락에서, 과정신학은 모든 가능한 기독교 신학들이 인간중심주의에서 탈피하여 그들의 윤리적 함의들을 인간 공동체로부터 지구-자연과 더 큰 우주에 해당하는 영역들 안의 모든 존재들까지로 확장시키도록 도전한다. 과정신학 연구소(Center for Process Studies)의 수하키(Marjorie H. Suchocki) 교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과정신학의 이해가 가리키는 생태-윤리적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우리는 자연에 속해 있으며, 우리의 돌봄은 인간 공동체 형제자매들에게 제한될 수 없으며, 땅과 하늘을 향해 확장되어야 한다. ... 정의는 인간 공동체를 넘어서 피조세계를 유지시키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연의 공동체들과 연합하는 데까지 확장되어야 한다.”<sup>14)</sup>

인간의 독특하고 고유한 가치는 어떤 전통적인 의미에서든 절대화되거나 다른 생물종(種)들의 희생과 멸종이라는 현실 앞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것은 피조세계의 질서 안에서 인간의 자리를 논하는 신학적 인간학을 포기하거나 생태학을 위해 인간 윤리를 희생시키는 문제가 결코 아니며, 오히려 피조세계 안의 또 다른 구성원들인 모든 비-인간 타자들에 대한 하나의 생태-사회적 정의(eco-social justice)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과정-관계적 사고를 통해 존재에 많은 평준화가 가능해졌고, 모든 것은 더 거대한 전체의 부분이지만 모든 개개 존재는 그 자체로써 중요하다고 주장된다. 이런 맥락에서 1970년 이후 과정사상에 그 사상적

13) Cf. Lynn White's critique of the anthropocentrism of Western Christianity. Lynn White Jr.,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Science* 155(10 March 1967), 1203-7.

14) Marjorie H. Suchocki, *God-Christ-Church: A Practical Guide to Process Theology* (New York: Crossroad, 1989), 201-202.

기반을 둔 신학자들이 당시의 해방신학자들이 제안하는 해방적 비전이 어떤 의미에서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즉 그들의 관점이 너무 인간중심적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비판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정신학자 캅(J. B. Cobb Jr.) 역시 신중심주의를 위해 인간중심주의를 거절하고 있는데,<sup>15)</sup> 기독교계 안팎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의와 인간 해방의 문제들에 대해서 말해져야 한다. ... 그러나 만일 그 문제들이 포괄적인(inclusive) 지구적 상황을 망각하는 가운데서 말해지고 있다면, 그 노력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sup>16)</sup>

### 3) 과정-관계적 생태영성과 비-인간 피조물의 권리

과정-관계적 사고는 모든 존재들의 근본적 가치와 상호의존적 관계를 말하는 것 외에도 비-인간 피조물의 권리에 대해 말함으로써 필연적으로 과정-관계적 관점에 기초한 생태학적 영성의 강조와 그것의 윤리적 함의들에 대한 주목을 촉구한다. 과정-관계적 관점을 지닌 신앙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되 동일한 보편적 존엄성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존재로 본다.”<sup>17)</sup>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과만 관계하는 존재, 즉 세계 속에서 단지 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종(種)과만 관계하는 존재가 아니라, 전체 동·식물이 살고 있는 세계 속에서 내재하고 거기서 활동하는 분이다.<sup>18)</sup> 따라서 과정신학이 제안하는 윤리적 관점들은 인간 공동체로부터 지구-자연과 더 큰 우주에 해당하는 영역,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비-인간 피조물의 영역까지로 그 관련 대상이

15) John B. Cobb Jr., “Process Theology and Environmental Issues,” *Journal of Religion*, 60, no. 4 (Oct. 1980), 450.

16) Cobb, “Process Theology and Environmental Issues,” 441.

17) 로버트 메슬, 『과정신학과 자연주의』, 138.

18) 위의 책, 173-174.

확장되어야 한다.

원로 과정신학자 캡(John B. Cobb Jr.)은 그의 신학에서 특히 이러한 생태학적 영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한 마디로, 캡의 독특하고도 중요한 업적은 과정신학을 생태학적 관점에 깊이 적용하여 전개했고, 특히 생태학과 관련된 정치, 경제적 영역에까지 광범위하게 기독교의 책임과 윤리의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온 것이다. 캡은 우주는 실체적 물질이 아닌 사건들의 상호 작용의 연속적 연속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화이트헤드의 사상을 그의 생태학적 신학의 토대로 삼았다. 캡에 따르면, 신과 인간과 자연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독립적 실체가 아니라 유기적 관계성 안에 있다는 과정적 사고야말로 근본적인 생태학적 감수성의 원천이다. 특히 세계와 분리되지 않고 만물과 함께 경험하고 모든 현실 존재를 파악하며 수용하는, 즉 만물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님 이해로부터 출발함으로써, 캡은 전통적 기독교 신학의 인간중심적 세계관으로부터 생태적인 신-중심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공감(empathy)으로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이외의 피조물들 가운데 고통을 줄이고 즐거움을 배가하기 위해 일해야 한다. 한편 캡은 환경윤리를 위한 과정 사상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데 까지 나아갔다. 캡에 따르면, 완성된 인간은 경험의 중심이며 그 경험은 유일한 고유의 이득이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또한 다른 존재의 경험에 기여하기도 하며, 그 경험으로 기구적인 이득을 얻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를 단지 고통의 감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극대적인 증대와 모든 생명체의 잠재성을 일깨우는데 두어야 한다. 또한 캡에 따르면, 교회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상호참여의 자발적인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개방을 통해 창조적으로 변화해야 하며, 이러한 변혁은 교회와 교회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분리할 수 없다는 과정-관계적 인식으로 인해 사회와 생태계 가운데서 총체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sup>19)</sup>

인간과 비-인간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한 과정사상에 기초한 생태학적 영성의 분명한 메시지는 이것이다. 즉, 인간의 독특하고 고유한 가치는 절대화되거나 다른 생물종(種)들의 희생과 멸종이라는 현실 앞에서까지 결코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과정사상이 책임적으로 사고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촉구하는 생태·생명윤리적 각성은 피조세계 안에 있는 전(全) 생명에 대한 경외, 그리고 근본적으로 비-인간 타자들에 대한 경외이다. 인간 자아는 동료 인간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자연 안의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이러한 모든 존재들의 근본적 가치와 상호의존적 관계 관점은 궁극적으로 인간중심주의의 극복을 전제한다. 즉 생태·생명시대의 현실참여를 위한 신학으로서 과정신학의 윤리적 메시지는 인간이 대상을 타자화시키고, 종속화시키는 주체에서 관계적이고 돌봄을 실천하는 주체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19) 특히 생태적으로 적합한 경제학적 관념으로 내 놓은 캡의 공동체주의는 유기체적 관계성을 존재의 본질적 구조로 여기는 과정 사고가 어떻게 비-인간 피조물에 대한 그의 생태학적 신학에서 전개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첫째, Homo economicus는 공동체 안에 있는 인간(person-in-community)으로 다시 생각되어야 한다. 둘째, Homo economicus가 한 일원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는 인간들에 국한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로부터 분리되어 변영할 수 없다. 셋째, 우리의 자손들의 안녕에 대한 평가절하는 있을 수 없으며, 이것은 또한 우리와 함께 지구를 공유하는 다른 종들의 미래의 안녕에도 해당된다. 넷째, 인간과 비-인간을 포함하는 보다 더 광의적 의미의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타자를 위한 가치 외에도 그 자신의 본래적 가치를 가진다. 다섯째, 피조물의 다양성은 인간을 위한 매우 중요한 미적 풍부함을 더해준다. 즉 종들의 멸종을 막아야 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문화들 안에서의 유형들과 인격들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일이 중요하게 된다. 여섯째, 생태학적으로 적합한 기술의 발전이 요구된다. 일곱째,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신다고 믿고 있다. John B. Cobb Jr., "Christianity, Economics, and Ecology," in *Christianity and ecology: seeking the well-being of earth and humans*, eds. Dieter T. Hessel and Rosemary R. Ruether (Cambridge, MA: Harvard Univ., 2000), 507-508.

## 2. 과정신학과 동물신학의 만남

한국의 신학계에서는 여전히 낯선 이름이지만, 서구 기독교 신학에서는 소위 ‘동물신학’(animal theology)이라고 명명되는 신학 흐름이 있다. 동물신학은 기독교 신학전통의 대(大)주제들, 말하자면, 신앙, 은총, 부활, 구원, 죄, 자연법 등 신학관련 주제들을 동물의 실존과 권리문제에 관련 시켜야 한다는 현대적 도전을 적극적으로 채택한다. 동물신학은 기독교인들에게 신학적 세계이해와 구속신학에 있어서 동물의 자리에 관한 전통적인 가정들, 특히 동물에 관해 사회적으로 전통적으로 조건 지워진 믿음들에 직면하도록 도전한다. 동물신학이 특히 집중적으로 저항하는 신학적 가정은 전통적인 신관에 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인간의 목적들에만 전념하신다는 것과 피조물은 단지 인간이 자신들의 구원을 실현시키기 위한 배경에 불과하다는 믿음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서, 동물신학은 인간 개인을 탈중심화(decentralization)시키고자 하며, 전체 피조물의 청지기로서의 인간의 적절한 역할을 확인시켜 주고자 한다.

### 1) 과정신학자들의 동물권 이해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과정신학자들의 신관은 하나님의 내재와 초월을 과정-관계적 범재신론으로 이해한다. 과정-관계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세계는 일종의 하나님의 몸으로 간주된다.<sup>20)</sup> 즉, 세상은 하나님의 몸이 형체화된 실재다. 하나님(초월)과 세상(내재)은 서로 유기적으로 함께 한다. 성령의 경우 역시 세계 안에 범재신론적(panentheistic)으로 존재하므로 모든 만물은 성령을 통해 내재된 본질적 가치를 가진다. 이러한 신관을 공유하는 그룹에서 과정신학자 존 캅, 제이 맥다니엘(J. B. McDaniel), 매튜 폭스(Matthew Fox), 생태여성신학자 샬리 맥페이그(Sallie McFague)

20) 참고. Sallie McFague, *The Body of God*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등이 속한다.

화이트헤드의 과정사상이 암시하는 신관에 집중하여 과정신학으로의 길을 매개한 과정사상가로 지난 세기 최고의 형이상학자이며 철학자의 한 사람인 하트손(Charles Hartshorne)은 흥미롭게도 소위 “자연의 철학자”(philosopher of nature)로 불리며, 뿐만 아니라 새(bird) 노래 분야의 전문가로서 동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저작을 남겼다. 하트손은 특히 공유된 창조적 경험에 대한 하나의 철학인 *Creative Synthesis and Philosophic Method*(1970)를 출판한 이후 줄곧 동물들에 대해 지대하게 주목했다. 일반적으로 화이트헤드는 자신의 형이상학적 체계를 통해 필연성과 우연성, 유한과 무한, 내재와 초월, 그리고 일자와 다자 사이에 존재하는 양극단들의 완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철학자로 말해진다. 사실상 화이트헤드는 현실태들(actualities)의 다원성을 부정하는 극단적 일원론자가 아니었고, 현실태들이 완전히 상호의존한다고 주장하는 다원주의자도 아니었다.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은 이들 각 양극단의 상대들을 화해시킬 수 있었고, 하트손은 이러한 형태의 화이트헤드의 화해를 그 자신의 형이상학 안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동물이해와 관련하여 하트손이 발전시킨 주요 논자들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다. 즉, 인간과 동물 사이의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는 것이다. 특히 돔브로스키(Daniel A. Dombrowski)는 그의 *Hartshorne and the Metaphysics of Animal Rights*(1988)에서 과정사상의 관점에서 본 동물권의 형이상학을 논함으로써 ‘인간이 비-인간 동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또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에 관심을 가졌다.

유전공학을 전문으로 하는 생물학자이면서 과정사고를 통해 과학, 특히 생물학과 신학의 만남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이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버치(Charles Birch)이다. 그는 종교분야에서의 진전을 이룬 공을 인정

받아 1990년 국제 템플턴 상(Templeton Prize)을 공동으로 수상하기도 했다. 한 마디로, 버치는 특히 과학과 신앙 사이의 관계들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들을 열었다. 과정신학에 대한 그의 깊은 관심은 캅(Cobb)과의 공동저작인 *The Liberation of Life: From the Cell to the Community* (Cambridge: Cambridge Univ., 1981)로 열매 맺었는데, 이 책은 이 분야에서 하나의 고전에 해당한다. 비-인간 존재인 생물들의 권리와 관련하여 여기서 캅의 절친한 친구로서 자연과학자로 과정사상에 깊이 영향을 받아 생태철학과 생태윤리 및 생태신학에 조예가 깊은 버치의 글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sup>21)</sup>

“그들이 개구리이든 인간이든 자연의 개별 존재들을 존중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체들(subjects)이며 단지 객체들(objects)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살아있는 (살아있지 않은 것도) 피조물들이 주체들이라는 강조는 나에게 있어서 비-인간중심적인(non-anthropocentric) 윤리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넓게 개방된 문이 되어 왔다. 이것은 아마도 자연 보존을 위한 생태-철학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이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가 아니다. 만일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이 하나의 주체라면, 각자는 그가 사물들의 체계 안에서 가질 수 있는 도구적 가치 외에도 그 자신과 하나님에게 본래적인(내재된, intrinsic) 가치를 가진다. 이러한 인식이 명백하게 의미하는 것은 연민(compassion), 정의(justice), 그리고 권리들(rights)을 비-인간 이웃들에게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단지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들 자체로서

21) 버치(Charles Birch)는 유전공학을 전문으로 하는 생물학자이며, 호주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종교분야에서의 진전을 이룬 공을 인정받아 1990년 국제 템플턴 상(Templeton Prize)을 공동으로 수상했다. 또한 시드니 대학의 생물학 교수이기도 한 그는 옥스퍼드, 콜롬비아, 시카고, 미네소타 대학에서 각각 가르친 바 있으며, 버클리에서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유전공학 방문교수도 역임했다. 버치는 특히 과학과 신앙 사이의 관계들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들을 열었다. 그의 과정신학에 대한 깊은 관심의 열매로서 캅(John B. Cobb Jr.)과의 공동저작인 *The Liberation of Life: From the Cell to the Community* (Cambridge: Cambridge Univ., 1981)는 하나의 고전이다.

목적들로 대우받아야 한다. 그들 또한 각자가 즐기고 성취해야 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sup>22)</sup>

과정사고 안에서는 모든 실체를 기본적 범주의 동일한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모든 실체는 적어도 기본적인 경험의 중심부이기 때문이다. 복잡 다양한 생물체 사이에 어떠한 명확한 선도 그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버치의 경우 모든 피조물들이 동등한 본래적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한다는 점이다. 즉 본래적 가치의 계급체계가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권리들의 계급체계가 있다는 것이다.<sup>23)</sup> 버치에 따르면, 우리가 이 땅 위의 가난한 사람들과 압제받는 사람들에게 주로 관심을 갖고, 모기 보다는 고래와 침팬지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옳고 정당하다. 왜냐하면 가치의 위계는 곧 경험의 풍부함을 가질 수 있는 능력에 있어 차이들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많은 계층에서 경험의 강도, 폭과 근원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인간은 곤충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경험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 침팬지나 돌고래의 경험 수준은 곤충보다는 인간의 경험 수준에 가깝다.

한편 미국 홈볼트 주립대학의 철학교수인 수잔 암스트롱 벅(Susan Armstrong-Buck)은 환경윤리를 위한 기초로서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적

22) Charles Birch, "Process Thought: Its Value and Meaning To Me," *Process Studies* 19, no. 4. (Winter 1990). <http://www.religion-online.org/showarticle.asp?title=2801>.

23) 과정 사상은 존재가 달성할 수 있는 고유한 유용성과 기구적 유용성 모두에서 존재들 간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바위 덩어리는 완성된 중심이 없는 다만 하나의 뭉친 물질에 불과하다. 세포의 생명이 식물 전체 생명에 좌우하지만 식물은 각 세포의 경험만큼 집적된 경험의 중심부가 없다. 더욱 발달된 존재는 다른 존재의 경험에 더 큰 이득을 줄 수 있으며 기여할 수도 있다. 단순한 생명체에게서 기본적인 감정이 존재하지만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로 볼 때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암세포나 말라리아, 병원균 모기를 죽이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만약 굶어 죽어 가는 아이들에게 동물의 희생을 댓가로 영양분을 섭취시킬 수 있다면 그러한 고통은 정당화될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귀중하지만 그들은 동등하게 귀중하지는 않다.

체계에 주목하면서 비-인간 경험에 대한 화이트헤드적 분석을 시도했는데<sup>24)</sup>, 즉 비-인간 경험에 대한 최근의 발견들에 화이트헤드의 체계를 적용시켰다. 그녀에 따르면, 비-인간 경험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화이트헤드의 인식론적 체계를 뒷받침해 준다. 즉, 화이트헤드의 체계에서 인지(perception)는 ‘인과율에 따른 유효성과 표상적 직접성’(causal efficacy and presentational immediacy)이라는 두 가지 형태를 취하고, 명제들과 개념들은 주로 비언어적이며, 감정은 세계-개방과 자기-개방의 지배적인 양식이다. 또 동물들은 도덕적으로 심미적으로 모두 경험한다. 또한 최근의 연구는 비-인간 능력들이 화이트헤드가 주장한 것보다 인간 능력들에 어느 정도 더 가깝다는 보여준다고 암스트롱-벅은 지적한다. 암스트롱-벅이 결론지어 말하는 대로, 대체로 화이트헤드의 이론은 사실상 인간중심적 도그마를 피할 수 있게 만들며, 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이해될 때 동물은 인간의 사용을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진화적 모험에서 동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든다.

## 2) 맥다니엘(Jay B. McDaniel)의 관계적 생태영성

과정사상에 기초한 동물신학의 가능성을 말할 때, 미국 내 생태신학자로서 활동하는 맥다니엘(Jay B. McDaniel) 교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맥다니엘은 과학과 종교간의 간학문적 대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잡지 ‘Zygon’에 기고한 “Six Characters of a Postpatriarchal Christianity”에서 자신이 남성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탈가부장적 기독교의 등장과 그 성격을 규명하는데 집중했다. 페미니스트의 정신을 가지고 자연생태계에 대한 신학적 연구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맥다니엘은 *with Roots and Wings*:

24) Susan Armstrong-Buck, “Nonhuman Experience: A Whiteheadian Analysis.” *Process Studies* 18, no. 1 (Spring 1989), 1-18.

*Christianity in an Age of Ecology and Dialogue*(1996)<sup>25)</sup>를 펴냈고, 이 책에서 맥다니엘은 여성적 시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연민 속에 전 자연생태계를 포괄시킴으로써 생태계의 구원을 희망하고 실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기할 사항은, 이 책에서 맥다니엘이 전통적으로 교회공동체에서 핵심으로 고백해 온 적색은총과 비교하면서 녹색은총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녹색은총이란 인간 삶의 토대를 이루는 자연환경 전체를 지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서 최상의 선물이며 이것 없이는 인간 삶이 유지될 수 없다. 만일 근본적으로 인간에서 생명에 대한 외경심이 없고, 자연은 있는 그대로의 존재가 아니라 욕망의 대상으로만 간주된다면 인간은 녹색은총을 상실하는 것이다. 맥다니엘에 따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그 자체는 의미를 가지며 거대한 생명체계의 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한 인간은 녹색은총을 누릴 자격이 없다. 또한 맥다니엘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최상의 선물로서의 적색은총을 단연코 녹색은총의 빛에서 이해한다. 자연에서 들려지고 보여지는 고통과 비탄의 소리, 상처투성이의 자연(피조물의 고통, 생태계의 위기)은 인간의 자기중심성, 욕망과 탐욕으로 인해 듣고 볼 수 없으며, 인간은 적색은총을 통해 그러한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직시하도록, 그들의 고통과 비탄에 참여하도록 도전받는다. 그러므로 적색은총은 인간으로 하여금 전 자연생태계의 고통에 자신을 개방시켜 그와의 연대를 이루게 하는 매개이다.<sup>26)</sup>

25) 새롭고 영감을 불어넣는 통찰들로 도전하는 이 책은 지구, 종교, 우주 안에서의 인간의 자리를 다시 그리고 있다. 영적 구도자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문장으로 맥다니엘은 자연과학, 기독교신학, 종교간 대화로부터의 통찰들을 결합시킴으로써 우리 시대를 위한 통전적 영성을 위한 새로운 기초를 마련한다.

26) 참고 이정배, "녹색은총의 생태론자." [http://www.greenchrist.org/bbs/board.php?bo\\_table=community\\_4&wr\\_id=7](http://www.greenchrist.org/bbs/board.php?bo_table=community_4&wr_id=7).

한편 이 글의 주제와 관련시켜 주목해야 할 점은, 범재신론과 기독교 사이의 분리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기막히게 아름다운 조직신학에 해당하는 그의 *Of God and Pelicans: A Theology of Reverence for Life*(1989)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과정신학자 맥다니엘은 다른 과정사상가들처럼 하나님의 내재와 초월의 문제를 ‘관계적 범재신론<sup>27)</sup>’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병아리(새끼)들을 향한 신적 공감으로 내재적으로 현존하신다. 하나님, 성령은 “이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인 둘째 새끼와 함께 하시고 함께 고통당하신다(마 25:40). 수난자로서 하나님은 동물 안에 내재하시면서, 동물의 감정들을 느끼시고 동물과 함께 경험하신다. 동시에 성령은 또한 첫째 새끼와 함께 하시며, 행위주체로서 그 새끼가 자신의 필요들을 충족시키도록 동기제공의 역할을 하신다. 하나님은 행위주체로서(agent) 동물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신다. 맥다니엘이 주장하는 대로, 동물 자신의 적절한 형태의 통전성으로 그 동물을 초대하고 자극하신다(motivates). 과정신학자이면서 동물신학자인 맥다니엘은 우리를 범재신론적 관점을 통해 인간-중심적 신학으로부터 끌어내어 전 생명에 도덕적 관심과 존중을 부여하는 신학으로 이끌어 가고자 한다. 맥다니엘의 과정신학적 이해에 따르면, 하나님은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폭력에 의한 죽음을 당하는 지각이 있는 야생 동물의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다.

범재신론에 대한 맥다니엘의 생각을 형성시킨 것은 과정신학이다. 이

27) ‘관계적 범재신론’(relational panentheism)은 신과 세계의 불이(不二)적 관계를 인간의 몸과 정신의 관계를 비유로 삼아 표현한다. 예컨대 인간정신이 몸을 통해 몸 안에서 행동할 때 행위주체 (Agents)이지만 동시에 인간 정신(마음이 몸의 영향을 받고 몸의 현존을 느끼는 한에서 인간 몸에 대해 수동자(patients)가 된다. 이것은 늘 경험하는바, 인간의 몸이 정신과 몸을 동일시하는 일상적 자각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계의 창조물들 역시 하느님의 자기동일성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경험 안에 있게 된다. 피조물들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러한 사고의 체계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계의 전개에서 동물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원초적 원천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맥다니엘에 따르면, 혼돈으로부터 초대된 물질은 그 자신의 창조적 독립성을 가지며 그 자신을 우연과 법칙으로 제시한다.<sup>28)</sup>

그러므로 맥다니엘의 소위 탈가부장적 기독교 생태영성은 과정사상의 '관계적 범재신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며, 즉 공감적, 관계적 생태영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은 이웃종교인들은 물론 생명권(Biosphere) 내 모든 생명체들과의 관계, 곧 그들과의 상호의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은 모든 것과 더 붙어 관계하고 있다.'는 것이 생태계의 제1법칙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현존만이 아니라 운명과 관심 모든 것이 생태계내 모든 비-인간 피조물의 실존과 상호 얽혀 있는 것이 현실이란 의미이다. 실존은 철저히 본질에 앞선다. 그렇기에 영성은 삶의 경험과 분리된 다른 차원의 것이 아니다. 이원론에 익숙한 기독교가 현실 세계에 대해 좀 더 공감적인 태도를 보여야만 한다. 자연 생태계의 유기체적 특성과 생명공동체에 대한 감수성이 기독교 신학에게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맥다니엘은 인간 및 자연 생명체의 본래적 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즉 생명 본유의 가치에 대한 자각을 탈가부장적 기독교 생태영성의 핵심으로 보는 것이다.

---

28) Jay B. McDaniel, *Of God and Pelicans: A Theology of Reverence for Life*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1989), 24-26, 34-36.

### 3) 린지(Andrew Linzey)의 신학적 동물윤리

옥스퍼드 동물윤리 센터(the Oxford Centre for Animal Ethics)의 설립자이자 소장인 영국성공회 사제 린지(A. Linzey) 박사는 동물권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자이며 신학자이다. 그는 1976년 이후 동물권과 기독교 이슈에 대한 거의 2백 개에 이르는 논문들과 신학과 윤리에 대한 수많은 책들을 저술하거나 편집해 왔으며, 특히 *Christianity and the Rights of Animals*, *Animal Theology*(1987) 등 동물권 주제에 대한 고전적 저술들을 발표해 왔다. 신학자로서 린지 박사는 각기 느낌을 가진 하나님 의 모든 피조물들의 권리와 복지 문제를 다루는 창조의 신학(theology of creation) 분야에서 독보적이고 지대한 개척자적 업적을 평가받아 지난 2001년 캔터베리 대주교에 의해 신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동물의 신학적 해방을 위한 모세로까지 일컬어지는 린지 박사는 동물에 대한 그의 신학적 이해들을 기초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기독교 전통 안에 있는 동물에 대한 본래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요청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린지의 대표적인 말이다.

“동물들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신의 창조물이다. 그들은 이용물도 아니고, 자원도 아니고, 소모품도 아니며, 신의 관점에서 모두가 소중한 존재들이다. ……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십자가에 자신들의 눈이 고정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실로 무지의 고통에 대한 외경심을 이해해야만 하는 특수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들 대부분의 모든 존재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방어력이 없으며, 무지의 고통 속에 있는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리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신의 절대적 표상이다.”<sup>29)</sup>

29) Rev. Andrew Linzey, <http://www.jesusveg.com/index2.html>.

과정신학자 맥다니엘과 동물신학자 린지의 비교를 시도한 바 있는 웨이드(Richard Wade)는 그의 에세이 “Animal Theology and Ethical Concerns”에서 실로 선구자적 동물신학자들인 맥다니엘과 린지가 공통적으로 소위 “전통적인 잔인성-친절(cruelty-kindness) 윤리”를 넘어선 하나의 (동물)신학을 발전시키고자 시도했다고 평가한다. 여기서 “전통적인 잔인성-친절 윤리”에 대한 린지의 설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린지에 따르면, 동물들에게 돌아가야 할 존중을 말할 때 흔히 전통적인 잔인성-친절 윤리가 말해진다. 내용인 즉, 동물들에게 잔인성을 피하고 그들을 친절로 대접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린지의 설명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동물들의 생명은 신성한 것으로 고려되고 있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그들은 생명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동물은 여전히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창조한 수단이며, 인간은 동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배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동물은 이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결론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전통적 윤리에 대한 반성적 성찰에 근거해서 린지는 이른 바 아퀴나스의 전통적인 동물 윤리에 내재해 있다고 생각되는 소위 동물에 대한 도구론적(instrumentalist) 이해를 다음과 같이 반대한다.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은 전체 세계가 우리를 위해 지어졌다고 생각하는 데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동물들은 동료 피조물들이라기보다는 대상들, 기계들, 도구들, 그리고 상품들과 같이 단지 도구적으로만 간주된다.”<sup>30)</sup>

30) Christian attitudes to animals 'are akin to sexism and racism', <http://www.telegraph.co.uk/news/religion/8797021/Christian-attitudes-to-animals-are-akin-to-sexism-and-racism.html>

한 마디로, 린지의 동물신학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동물윤리에 대한 거부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어, 동물실험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간의 고통이 무엇으로부터 가해진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고통인 반면 동물실험에서 발생하는 고통은 인간에 의해 동물에게 직접 가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종류의 실험이든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실험은 도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서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간이 동물을 도구화하여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정당치 못한 일이다. 그런 까닭에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실험은 다만 기본적 학문 연구라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동물권에 대한 편견과 전통적인 동물윤리에 대한 전반적인 거부를 근거로 린지는 동물학대자들은 등록되어야 하고, 동물을 소유하거나 동물들과 함께 일하는 직업을 가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31)</sup>

한편, 린지의 동물신학의 또 다른 출발점은 그가 동물들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복음과 관련된 이슈로 보고 있다는데 있다. 대표작 *Animal Gospel*(2000)에서 린지는 소위 동물권 보호 운동의 의제들에 대한 열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 피조물을 포함한 전체 세계를 위한 복음에 대한 하나의 복음주의적 선포를 보여준다. 즉, 린지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최상의 목회신학으로서 동물들에 대한 더욱 영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지침서를 시도한 것이다. 린지에 따르면,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피조물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되었어야 할 인간 개인들과 제도들이 오히려 동물들에 대한 잔인성과 억압을 정당화했기 때문에, 동물들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하나의 복음과 관련된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것이

31) "Oxford theologian calls for animal cruelty register", *Christian Today*, September 27, 2012.

다. 린지에 따르면, 복음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동물의 고통에 관해 일종의 근본적인 절망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므로 동물의 고통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은 우리들 스스로가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것이다.<sup>32)</sup>

그러므로 린지에게 있어서 동물들은 명백하게 신학적 고려의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다. 동물신학에 대한 에세이집인 *Creatures of the Same God*(2007)에서, 린지는 관례적인 위트, 해박한 지식, 그리고 깊은 통찰을 가지고 동물권 문제에 대한 오늘날 생태신학자들, 교회지도자들, 그리고 정치가들로부터 오는 다양한 도전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린지에 따르면, 동물들은 신학적 고려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때때로 알파카까지 한 판단들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기독교 전통은 동물들을 진지하게 다루는데 용이한 원천들과 자원들의 심대한 원천을 가지고 있다. 동물들은 단지 어떤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에게 중요하며 또한 인간에게도 문제가 되어야 한다. 동물들은 기독교적 경험에 관련지어질 때 주변적 존재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 존재와 함께 그들의 적절한 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에서 내리는 린지의 결론이다.

한편 린지는 동물들의 사고와 언어능력을 다룸으로써 인간 편에서의 돌봄과 관심을 확장시키도록 요구한다. 그의 최근 저작인 *Why Animal Suffering Matters*(2009)는 철학적 통찰력이 날카롭고 신학적으로 민감하며, 무엇보다 탁월할 정도로 독서가능하고, 독창적이고 참여적이며 인상적인 책이다. 이 책을 통해 린지는 신학적이며 윤리적 주장, 조직적 분석, 그리고 개를 이용한 사냥, 모피 생산, 상업적 바다표범 사냥 등을 언급한

32) Andrew Linzey, *Animal Gospel* (Louisville, KT: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0), 2.

공적 문서들에 대한 주목할 만한 비판 등을 조직적으로 결합시키고 있다. 이 책에서 명백하게 기술되고 있는 린지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즉, 동물들에게 이차적인 도덕적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의 사고와 언어 능력의 부족은 보통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확장시키는 돌봄과 관심을 가지고 동물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린지의 동물신학은 전통적인 동물윤리 거부, 복음과의 관련성 강조, 기독교 신학적 전통에 대한 호소, 심지어 동물들에 대한 돌봄과 관심의 당위성 등 주제들을 다루면서 동물권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동물의 고통에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이 글에서 집중한 과정신학자들의 동물권 이해와 달리 신학으로서의 린지의 동물윤리는 이쉽게도 신론, 즉 과정신학이 보여주는 관계적 범재신론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어떤 의미에서 린지의 동물신학이 기독교적 동물윤리의 각론에 해당된다면, 반대로 맥다니엘의 관계적 범재신론은 형이상학적 이론적 토대로서 동물신학의 전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린지가 『동물권리선언』에서 보여주는 생각, 즉 어떤 의미에서 개별 동물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고 동물에게 보다 더 온정을 갖는 일이 우리 인간에게도 온정을 갖게 되는 일이라는 생각은 여전히 일종의 도구론적 사고에 머무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33)</sup> 따라서 필자는 과정신학의 범재신론과 린지의 동물신학의 기독교적 윤리가 만난다면, 린지의 동물신학에 관계적 범재신론이 추가됨으로써 보다 신학적인 기독교적 동물윤리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3) 마크 배코프 지음, 윤성호 옮김, 『동물 권리 선언』(미래의 창, 2011), 34.

### 3. 과정신학으로서의 동물신학과 과정-관계적 동물윤리

#### 1) 과정신학으로서의 동물신학의 가능성

삶의 전 분야에서 생태·생명시대의 화두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한국사회에서 이제 결코 피할 수 없는 동물권 이슈는 특히 기독교계에 보다 전향적인 사고의 전환과 동물윤리의 실천을 촉구한다. 필자는 화이트헤드(A. N. Whitehead)의 과정사상과 그에 기초한 과정신학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형태의 동물학대로 표출되는 동물권 이슈에 대해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과 삶이 고려할 수 있는 대안적 접근을 제안한다고 보았다. 과정사상과의 만남은 비-인간 피조물의 가치와 권리에 대한 전향적인 통찰들을 제시하고, 동물의 실존과 권리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윤리의 함의들을 제안한다. 특히 과정신학의 과정-관계적 동물권 이해가 한국 교회를 향해 동물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실천을 도전하고 소위 동물신학을 기독교신학의 윤리적 담론으로 수용하기를 도전하는 이유는 오늘의 신학이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상황에 응답적이고(responding) 관련적이며(relevant) 책임적으로(responsible) 접근하도록 도전받고 있기 때문이다.<sup>34)</sup>

먼저 응답적인(reponding) 노력으로서 과정신학으로서의 동물신학은 오늘의 상황에 응답하기 위해 “구성신학적”<sup>35)</sup>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즉 동물권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비-인간 피조물의 실존적이고 도덕적 권리를 다루는 전통적 신학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와 재구성을 시도하기 때

34) 필자는 이것을 오늘을 모든 신학에게 요구되는 3R(responding, relevant, responsible)이라 부른다.

35) 여성신학, 생태신학, 흑인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등 이들을 총칭하여 ‘구성신학’(constructive theology)이라 부르며, 즉 자신이 처한 상황, 경험 그리고 세계관에 근거하여 상상력을 계발하고 그 토대 하에서 신학을 재구성해 온 신학방법론을 가리킨다. 이정배, 『생명의 하나님과 한국적 생명신학』(새길, 2004), 17쪽 참고.

문이다. 지구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인간과 피조세계 전체를 위협하는 생태학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기독교적 삶과 실천은 창조세계의 미래에 관한 새롭게 동의된 전망들을 가지고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를 새롭게 해석하도록 도전한다. 오늘의 기독교인은 기독교 전통의 어두운 측면에 직면해야 하며, 특히 동물에 대한 기독교 전통의 부정적 취급을 고백하고 수정해야 한다. 필자는 이 연구에서 특히 동물신학자 린지와 대화하면서 그러한 기독교 전통의 부정적 취급 가운데 하나로서 전통적 동물 윤리에 내재해 있는 동물에 대한 도구론적(instrumentalist) 이해에 집중하였다.

다음으로 보다 관련적인(relevant) 신학으로서 과정신학의 관점에서 본 동물신학은 동물권 이슈에 대해 “간학문적 대화와 소통”의 방법을 통해 동물권 이슈에 보다 관련적인 신학이 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즉 철학, 경제학, 사회학, 동물학 등과의 간학문적 대화를 통해 동물권 이슈에 대한 보다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기독교 신학은 기초과학과 사회과학이 이뤄 놓은 성과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그 어느 때 보다 민감하게 직면해 있다. 최근 학문 연구에서 기독교 신학과 인문학·과학·사회과학의 만남이 권장되고 있다는 맥락에서 기독교 신학은 기초과학과 사회과학에 이루어진 학문적 토대를 수용하여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한 공동창조자로서의 청지기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전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동물권 문제에 대한 과정신학적 접근은 특히 신학과 과학의 만남에 있어서 지난 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과학이 이끈 세계관의 변화, 즉 과학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 전체론적인 관점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선회했다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바로 그곳이 최근 신학과 과학의 만남이 더욱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리이기도 하다. 또한 경제학, 사회

학과의 토론을 통해 오늘의 신자유주의, 소비만능주의, 인간중심적 세계 사용 등에 대항하여 신학적 관점에서 응답해야 한다. 사회윤리학적 관점에서도 신학의 영역, 예를 들어 동물신학의 분야에서 해방주의적 관점이 요청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책임적인(responsible) 신학으로서 과정-관계적 관점의 동물신학은 “생태·생명윤리적 적용”의 방법에 충실하고 있는데, 특히 그것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생태·생명윤리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필자는 과정신학적 관점에서 비-인간 피조물의 생명권 이해의 윤리적 중요성이 강조될 때, 과정-관계적 신관에 기초를 둔 기독교신학은 생태·생명학적으로 책임적인 행동들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적합한 관련자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았다. 최근의 전지구적인 생태학적 위기에 대해 어떤 것이든 의미있고 효과적인 대응은 오늘날의 지배적 세계관이 생태학적으로 유지 가능한 지구의 미래에 결정적 우선권을 부여하는 대안적 세계관에 의해 계승될 것을 요구한다.

## 2) 과정-관계적 동물윤리의 의미

최근 인문학계의 거대담론인 생태·생명주의 운동은 인간중심주의와 인간과 비-인간 피조물 사이의 이원론을 극복하도록 촉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떠 오른 동물의 권리 이슈를 철학적, 종교적 인식과 실천에 대한 논의의 중심으로 위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글의 서두에서 분명히 지적된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동물권 이슈와 관련된 보다 진전된 인식과 실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철학 및 종교적 틀 안에서의 형이상학적 전제들에 기초한 윤리가 필요하다는 점과, 그런 맥락에서 특히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신학적 재구성이 가져올

윤리적 함의들에 주목하는 논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즉 기독교 신앙이 현실세계에 적합한 새로운 윤리적 실천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하나의 철학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일관된 세계관에 기초하여 주의 깊게 조정된 구체적 해결방안들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과정사상의 실재관은 인간과 비-인간 피조세계, 즉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계 방식, 또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의 관계들에 대한 철학적, 종교적 확신들에 근거한 것으로, 하나님과 세계,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적합하고 설득력 있는 세계관이다. 과정-관계적 관점으로부터 모든 존재들의 기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 모든 존재들의 상호의존적 관계, 인간중심주의의 극복, 비-인간 피조물의 가치와 생명권에 기초한 동물신학의 가능성과 그것의 윤리적 중요성이 강조될 때, 과정관계적 생명신학은 생태·생명학적으로 책임적인 행동들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적합한 기독교윤리를 위한 관련자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과정-관계적 관점을 가진 동물권 목소리들이 린지(A. Linzey)의 동물신학과 만날 때 린지의 동물신학에서 제기되는 신학적 질문들에 대답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동시에 린지의 동물신학의 종교철학적 반성을 위해 과정-관계적 범재신론으로 대표되는 과정사상이 적합하고 설득력 있는 세계관으로 제시될 수 있다.

필자는 과정신학적 관점으로부터 비-인간 피조물의 생명권을 숙고함으로써 장차 과정신학적 기독교 생명신학이 생태·생명학적으로 책임적인 행동들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적합한 기독교윤리적 관련자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았다. 생태주의, 생명주의의 논의에서 하나의 관련 주제로 이 연구는 동물복제, 동물실험 등 동물의 생명권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윤리적 논의를 위해 한 참고문헌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동물의 생명권 문제를 신학적 사고의 틀 안에서 다룸으로써 현실

교회들로 하여금 현대사회의 이슈들을 보다 책임적으로 고민하도록 도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한편 과정-관계적 사고에 근간한 다양한 신학적 목소리들은 세속사회로 하여금 기독교 신학에 대한 통념을 수정하게 함으로써 기독교 신학 자체의 대외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신학의 영역에서 보다 전향적인 생태, 생명주의적 숙고를 실천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는 반기독교정서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인간중심주의, 영육이원론, 인간과 비-인간의 대립적 사고 등, 전통적 기독교 교리가 배태하고 있는 기독교계 내에서의 한계와 약점을 극복함으로써 교회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반생명주의적 현상을 대처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과정신학이 보여준 것처럼, 그 종교적, 철학적 세계관 논의를 통해 비-인간 피조물들의 생명이해와 윤리적 실천에 있어서 불교 등 아시아 종교들과 기독교의 만남 등 종교간 만남과 대화에까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말한다면, 과정-관계적 동물신학이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유기체적이고 통전적 세계관을 강조하는 아시아의 철학적, 종교적 세계관에 눈뜨게 하고, 그러한 세계관을 통해 피조세계 전체의 생명에 대한 존경의 문화를 재발견하고 종교적 믿음들과 인문학적 의식, 그리고 생명파괴의 삶의 제반 현실의 치유와 회복을 고민하도록 도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요청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고, 특히 교육현장에서 비-인간 피조물의 생존권, 또는 생명권을 강조하기 위한 이론적, 철학적 근거로 토론될 수 있을 것이다.

### III. 닫는 말

이 글에서 필자는 동물권 이슈에 대한 하나의 종교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이 글의 출발점은 동물권에 대한 보다 전향적이고 실천적인 변화는 종교 및 철학의 형이상학적 전제들에 기초한 윤리, 특히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신학적 윤리에 주목하는 논의가 요구된다는 전제에 있었다. 따라서 필자는 인간과 비-인간 피조세계를 포함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계 방식, 또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의 관계에 대한 종교철학적, 그리고 신학적 확신들과 윤리적 함의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편 필자는 하나님과 세계,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비-인간 존재들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적합하고 설득력 있는 세계관으로 화이트헤드(A. N. Whitehead, 1833-1947)의 소위 과정사상(process thought)에 주목했고, 과정-관계적 신학의 토대 위에 목소리들과 린지(A. Linzey)의 동물신학(animal theology)을 비교함으로써 과정관계적 신학의 관점에서 소위 동물신학에 대한 종교철학적 반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화이트헤드의 과정사상을 적합하고 설득력 있는 세계관으로 제안했다. 나아가 필자는 이 글의 결론으로 과정-관계적 관점으로부터 모든 존재들의 기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 모든 존재들의 상호의존적 관계, 인간중심주의의 극복, 비-인간 피조물의 가치와 생명권에 기초한 동물신학의 가능성과 그것의 윤리적 의의를 강조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필자는 이 글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숙고를 심화시키기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글이 소위 과정-관계적 생명신학으로서 오늘날 양심적이고 책임적인 기독교인들의 삶이 비-인간 피조세계에 대한 억압적이고 반생명적인 현상들에서 생태·생명학적으로 실천적인 행동들을 가져오도록 도전할 수 있는 하나의 적합한 신학적 관련자원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며, 한국교

회가 이원론적, 개인주의적, 인간중심주의적 성향의 신학을 탈피하여 오늘날의 생태·생명 시대에 요구되는 통전적, 해방주의적(liberationist) 신학과 실천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정수. 「구제역 정책실패로 인한 환경문제와 시민과학」.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15권 1호, 2011. 85-119.
- 김희현. 「기독교 신학의 내적 딜레마에 대한 과정사상의 응답」. 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한국조직신학논총』 제27집, 2010. 43-78.
- 이정배. 『생명의 하나님과 한국적 생명신학』. 새길, 2004.
- 추정완 · 최경석 · 권복규. 「동물권 옹호론과 영장류 실험에 대한 윤리적 검토」. 한국생명윤리학회. 『생명윤리』 제8권 1호(통권 제15호), 2007. 41-53.
- 마크 배코프 지음, 윤성호 옮김. 『동물 권리 선언』. 미래의 창, 2011.
- 찰스 버치 · 존 갑. *The Liberation of Life: From the Cell to the Community*. 양재섭 · 구미정 옮김. 『생명의 해방 - 세포에서 공동체까지』. 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서양편 255. 나남, 2010.
- 피터 싱어 지음, 김성한 옮김. 『동물 해방』. 인간사랑, 1999.
- Armstrong-Buck, Susan. "Nonhuman Experience: A Whiteheadian Analysis." *Process Studies* 18, No. 1(Spring 1989): 1-18.
- Birch, Charles. "Process Thought: Its Value and Meaning To Me." *Process Studies* 19, no 4 (Winter 1990): 219-229. <http://www.religion-online.org/showarticle.asp?title=2801>.
- Birch, Charles, William Eakin and Jay B. McDaniel. *Liberating Life: Contemporary Approaches to Ecological Theology*. Ed. by Charles Birch, William Eakin, and Jay B. McDaniel. Maryknoll, N. Y.: Orbis Books, 1990.
- Boff, Leonardo. *Ecology and Liberation: A New Paradigm*. Maryknoll, NY: Orbis Books, 1995.
- Bracken, Joseph A. *The One In The Many: A Contemporary Reconstruction of the God-World Relationship*.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2001.
- Cobb, John B. Jr. *After Noah: Animals and the Liberation of Theology*. London: Mowbray, 1997.
- Cobb, John B. Jr. "Christianity, Economics, and Ecology." In *Christianity and*

- ecology: seeking the well-being of earth and humans*, eds. Dieter T. Hessel and Rosemary R. Ruether, 497-511. Cambridge, MA: Harvard Univ., 2000.
- Cobb, John B. Jr. "Deep Ecology and Process Thought." *Process Studies* 30 no 1 (Spr-Sum 2001): 112-131.
- Cobb, John B. Jr. *God and the World*. Philadelphia: Westminster, 1969.
- Cobb, John B. Jr. *Grace & Responsibility: A Wesleyan Theology for Today*. Nashville, TN: Abingdon, 1995.
- Cobb, John B. Jr. "Process Theology and Environmental Issues." *Journal of Religion* 60 no 4 (Oct, 1980): 440-458.
- Cobb, John B. Jr. *Sustainability: Economics, Ecology and Justice*. Maryknoll, N.Y.: Orbis Books, 1997.
- Cobb, John B. Jr. and David Griffin. *Process Theology: An Introductory Exposition*. Philadelphia: Westminster, 1976.
- Daly, Herman E. and John B. Cobb Jr. *For the common good*. Boston: Beacon Press, 1994.
- Dombrowski, Daniel. *Hartshorne and Metaphysics of Animal Rights*. Albany, NY: State Univ. of New York, 1988.
- Farians, Elizabeth. "Is There Gospel Good News for the Animals: A Survey of Recent Literature." Book Review for the Christian Vegetarian Association. See [www.christianveg.com](http://www.christianveg.com)
- Ford, Lewis S. *The Lure of God: A Biblical Background for Process Theism*. Philadelphia: Fortress, 1978.
- Griffin, David Ray. "A Process Theology of Creation." *Mid-Stream* 13 nos 1-2 (Fall-Winter 1973/74): 48-70.
- Harrod, Howard. *The Animals Came Dancing: native american sacred ecology and animal kinship*. Tucson: Univ. of Arizona, 2000.
- Joaranson, Philip N. and Ken Butigan, ed. *Cry of the Environment: Rebuilding the Christian Creation Tradition*. Santa Fe, NM: Bear and Co., 1984.
- Karlson III, Henry C. Antony.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Indianapolis: CreateSpace, 2011.
- Linzey, Andrew. *Animal Gospel*.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2000.

- Linzey, Andrew. *Animal Rights: Liturgies of Animal Care*. London: SCM, 1999.
- Linzey, Andrew. *Animal Theology: A Christian Assessment*. London: SCM, 1976.
- Linzey, Andrew. *Christianity and Rights of Animals*. London: SPCK, 1987.
- Linzey, Andrew. *Creatures of the Same God: explorations in animal theology*. New York, NY: Lantern Books, 2009.
- Linzey, Andrew. "Making Peace with Creation: A Sermon at Harris Manchester College." *Expository Times* Vol. 110 no. 9 (June 1999): 283-284.
- Linzey, Andrew. *Political Theory and Animal Rights*. London and Winchester: Pluto, 1990.
- Linzey, Andrew. "The Divine Worth of Other Creatures: A Response to Reviews of Animal Theology." *Review and Expository* 102 (Winter 2005): 111-124.
- Linzey, Andrew. *Why Animal Suffering Matters: Philosophy, Theology, And Practical Ethics*. Oxford: Oxford Univ., 2009.
- Linzey, Andrew, ed. *The Link Between Animal Abuse and Human Violence* (Hardcover). Intl Specialized Book Service Inc.
- Linzey, Andrew & Dorothy Yamamoto, eds. *Animals on the Agenda*. Urbana and Chicago: Univ. of Illinois, 1998.
- Linzey, Andrew & Paul Barry Clarke. *Animal Rights: A Historical Anthology*. New York: Columbia Univ., 2005.
- McDaniel, Jay B. *Of God and Pelicans: A Theology of Reverance for Life*.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1998.
- McFague, Sallie. *The Body of God*.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 Mesle, Robert C. *Process Theology: A Basic Introduction*. St. Louis, Missouri: Chalice, 1993.
- Moses, Gregory James. "Process Relational Ecological Theology: Problems and Prospects," July 2000. <http://members.optusnet.com.au/~gjimoses/ecothlfr.htm>.
- Regan, Tom. *The Case for Animal Rights*. Berkeley and LA, CA: Univ. of California Press, 2004.

- Regan, Tom. *Defending Animal Rights*. Champaign, IL: Univ. of Illinois, 2007.
- Singer, Peter. *The Case for Animal Rights*. New York: HaperCollins Publishers, 1975.
- Wade, Richard. "Animal Theology and Ethical Concerns." *Australian EJournal of Theology* Issue 2 (February 2004).
- Webb, Stephen H. *On God and Dogs: A Christian Theology of Compassion for Animals*. New York, NY: Oxford Univ., 1998.
- Whitehead, Alfred N. *Adventures of Ideas*. New York: Free, 1933.
- Whitehead, Alfred N. *Modes of Thought*. New York: Free, 1938.
- Whitehead, Alfred N. *Process and Reality: An Essay in Cosmology*. Corrected Edition by David Ray Griffin and Donald W. Sherburne. New York: Free, 1978.
- Whitehead, Alfred N. *Religion in the Making*. Lowell Lectures, 1926.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26.
- Whitehead, Alfred N.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Lowell Lectures, 1925. New York, NY: Free, 1967.
- Whitehead, Alfred N. *The Concept of Nature*. Tarnar Lectures, 1919. London: Cambridge Univ., 1971.
- Whitehead, Alfred N. *The Function of Reason*. Boston: Beacon, 1929.

논문투고일: 2014. 02. 28.

심사개시일: 2014. 03. 13.

게재확정일: 2014. 04. 05.

---

• 국 문 초 록 •

---

이 글에서 필자는 동물권 이슈에 대한 하나의 종교철학적이고 신학윤리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이 글의 출발점은 동물권에 대한 보다 전향적이고 실천적인 변화는 종교 및 철학의 형이상학적 전제들에 근거한 윤리, 특히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신학적 윤리에 주목하는 논의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는 전제에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인간과 비-인간 피조세계를 포함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계 방식에 대한, 또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의 관계에 대한 종교철학적, 그리고 신학적 확신들과 그것들의 윤리적 함의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편 필자는 하나님과 세계,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비-인간 존재들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적합하고 설득력 있는 세계관으로 화이트헤드(Alfred N. Whitehead, 1833-1947)의 과정사상(process thought)에 주목했고, 과정-관계적 신학의 토대 위에서 동물권을 지지하는 목소리들과 린지(Andrew Linzey)의 동물신학(Animal Theology)을 비교함으로써 과정-관계적(process-relational) 신학의 관점에서 소위 동물신학에 대한 종교철학적 반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화이트헤드의 과정사상을 적합하고 설득력 있는 세계관으로 제안했다. 나아가 필자는 이 글의 결론으로 과정-관계적 관점으로부터 모든 존재들의 기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 모든 존재들의 상호 의존적 관계, 인간중심주의의 극복, 비-인간 피조물의 가치와 생명권에 기초한 동물신학의 가능성과 그것의 윤리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필자는 이 글이 소위 과정-관계적 생명신학으로서 책임적인 기독교인들의 실천적 삶에서 생태·생명학적으로 책임적인 행동들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적합한 신학적 관련자원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며, 한국교회로 하여금 개인주의, 인간중심주의적 성향의 자유주의 신학을 탈피하여 오늘의 생태·생명 시대에 요구되는 통전적, 해방주의적 신학과 실천으로 나아가도록 촉구하는데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동물권, 동물윤리, 동물신학, 과정신학, 과정-관계적 사고

---